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 연구

Gagye style of Goguryeo Murals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임 린
전임강사 김 은 정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Yim, Lynn

Full-time Instructor : Kim, Eun-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고구려 고분벽화 가계양식의 가치와 의미 |
| II.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사적 배경 | V. 결 론 |
| III.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considers the Gagye(加髻 Added Hair) style shown in ancient Goguryeo Murals and examines its values and significance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 relevance to the style of China.

In Gagye style, the Korean Hwan-gye(環髻 Round-rolled Hair) hair type wa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in letting the hair down and using accessories. The Korean Sseu-gye(Covered Hair) hair type features textile-made and Bokbal (Covered hair) styles. The Korean Go-gye(高髻 Highly-rolled up Hair) hair type wa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in style and volume. The Korean Da-gye(多髻 Multi-laid Hair) hair type wa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in component pattern in that the Korean Da-gye type was composed of two or three gyes. Eoneun meori (Braided & Coiled Hair) features the unique Goguryeo pattern in which “Che” was placed on the head and the hair was braided down on the sides of the face.

Therefore, the Gagye style of Goguryeo Murals was localized and developed through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Goguryeo and China. It also features its own values and significance in Korea’s clothing history.

주제어(Key Words): 고구려 고분벽화(Goguryeo Murals), 가계양식(Gagye style)

1. 서론

가계(加髻)는 단순히 두발을 정리하여 꾸미는 일차적 단계를 넘어서 두발에 다른 소재를 부가한 형태로, 발생단계부터 사회적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성격을 띤다. 즉, 가계는 단순히 여성의 미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의례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성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복식요소의 하나로 발전되고 변천되었다.

특히 고구려는 한국 가계가 형성되고 정착되었던 중요한 시기로 한국 가계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여성의 단순한 수식품이나 부속품으로만 인식되기도 하여 심도있는 접근을 이루지 못해왔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가계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은 현존하는 문헌과 자료의 부족으로 고구려 가계의 대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견해나 시각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후행연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적인 태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함께 상호연관성의 한계를 긋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복식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한국의 가계양식이 인접국가인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은 인정하더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성에 의해 독특한 양식을 형성해 왔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한국 가계양식의 원형과 제도를 밝히고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과의 관련성 논란을 일으켰던 가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사적 배경

고구려는 BC37~AD668년간 존속하면서 몇 차례의 천도(遷都)를 행하였다. 이는 수도의 인근지역에 역대왕과 주요 세력가들의 고분을 축조하는 통념에 따라,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나 환도성이 위치한 통구지역과 장수왕15년(427) 평양성 천도 후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고분을 남기게 하였고, 각 지역의 무덤은 천도가 행해졌던 당시대의 상황에 따라 고분의 축조형태나 내부구조 등 성격을 달리하였다. 특히 고분의 축조시기는 벽화의 내용 및 형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고분의 편년체계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게 하였으며, 이에 벽화고분은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4C초에서 7C초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전호태, 2003).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벽화고분은 축조시기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4세기에는 생활풍속 및 인물도가 그려졌고, 5세기 장수왕대가 되면 생활풍속 그림이 주요 내용으로 부상하면서 인물도는 약화되고 사신도(四神圖)가 서서히 출현하다가, 6세기 후반이 되면 사신도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유홍준, 이태호, 1997). 이러한 벽화고분은 통구지역 24기, 평양지역 69기로 평양지역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중 생활풍속 및 인물도를 볼 수 있는 고분 42기(정완진, 2003) 중 가계양식과 관련하여 벽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분은 16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벽화는 4세기에서 5세기에 축조된 고분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고분벽화의 편년과 내용에 대한 체계가 구체화된 것은 1949년 안악3호분의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악3호분 벽화는 모든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이 그리하듯이 고구려가 겪어 왔던 역사 속에서 발현된 것으로, 고구려 강역(江域)과 낙랑(樂浪)의 위치문제, 외래양식의 도입과정 문제 등 고구려사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과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논의의 한복판에서 주인공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안악3호분은 고분에서 발견된 묵서(墨書)의 표기년대(357)에 대한 해석에 따라 주인공이 전연(前燕)에서 망명한 동수(冬壽)라는 설과 고구려의 왕이라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태이다. 왕릉설은 다시 미천왕설과 고국원왕설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낙랑의 지리적 위치가 과연 평양지역인가에 관한 논의, 또 낙랑의 위치가 평양이라면 지배방법에서 중국계 망명인을 이용한 간접통치냐, 고구려인에 의한 직접통치냐의 논의 등 외래양식의 도입과정과 관련한 여러 논쟁과 맞물리면서 안악3호분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곧 이러한 논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악3호분의 주인공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고구려 문화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벽화내용에 대한 해석은 1500여년전 고구려를 파악하는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은 한국 고대복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가계양식의 형제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 이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의 고구려가 한국의 어떤 왕조보다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구려의 고유양식을 충분히 간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

각에서 가계양식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

고구려 고분벽화는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의 고분들에서 다양한 가계양식을 살필 수 있었다. 여기에서 파악된 가계양식은 본인의 두발 이외의 부가적인 물질을 두상에 부착한 것으로, 형태적 특성에 따라 환계형(環髻形)과 쓰개형, 고계형(高髻形), 다계형(多髻形), 엷은머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환계형은 철사나 기타 소재를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환계(環髻)를 더한 양식이며, 쓰개형은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였다. 또한 고계형은 정수리 부분에 체를 이용하여 높게 올린 형태이며, 다계형은 두발에 체를 더하여 두 개나 세 개의 계(髻)를 만드는 형태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엷은머리형은 체를 더한 두발을 머리에 얹어 고정하는 양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준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을 면밀히 고찰하고, 각각의 가계양식에서 논의되었던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계형

환계형 가계양식은 평양지역 고분인 안악3호분¹⁾과 덕흥리무덤²⁾ 벽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안악3호분에서 보이는 환계는 여주인공의 양식을 비롯하여 여주인공을 보좌하는 여인들, 주방의 여인에서 확인된다. 특히 여주인공의 환계는 고구려 가계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는 예로 안악3호분 발굴당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형태를 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에 높게 머리를 묶어 세우고 목재나 금속재를 활용하여 체를 덧붙인 둥근테(環髻)를 양쪽으로 펼쳐 놓았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양식과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으며, 또는 독자적인 고구려의 양식이라는 견해가 있어왔다. 구체적으로, 김용준(1957)은 여주인공의 가계양식이 당시(唐詩)에 언급된 고계운환(高髻雲鬘)이며, 머리수식이 화려하다는 점에서 다른 벽화와 현저한 차이를

(표 1) 환계형 가계양식

유형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유물자료
환계형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司馬金龍墓)

보인다고 하였다. 황호근(1976)은 진(晉)에서 유행한 가계양식이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에 유입된 것으로 이것은 진대(晉代) 가계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미경(1989)도 안악3호분 여주인공 가계양식은 남주인공의 관모나 복식에 비추어 볼 때 한족(漢族)의 영향을 받은 외래양식으로 추정하였다. 허정희(2002) 역시 안악3호분 여주인공의 가계양식은 중국의 힐자계(纒子髻)와 같으며, 계를 크게 묶고, 계 옆으로 끈처럼 머리카락 일부를 늘어뜨리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의 수소발식(垂髻髮飾)이라는 점과 보요(步搖)를 착용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족(漢族)의 가계양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나 주장은 주로 안악3호분의 주인공이 동수(冬壽)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동수무덤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주영현(1963)은 안악3호분의 가계양식을 고구려의 궁중양식으로 보았고, 이는 왕릉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며, 김정자(1982)와 배정룡(1982)은 조선시대 거두미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전주농(1959)은 이것이 중국 요양(療養)지방의 한대(漢代) 고분벽화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나 사실은 독특한 요소가 더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천석근(1986)은 안악3호분 벽화의 복식은 결코 다른 나라의 복식이거나 그 영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4세기 중엽의 고구려 궁중복식 자체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안악3호분의 환계형 가계양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안악3호분의 가계양식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태면에서 중국 가계양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안악3호분과 유사하다고 언급된 중국 요양지역의 후한과 위진남북조시대 고분벽화 중 사마금룡묘(司馬金龍墓) 목판칠화(木板漆畫)와 초창파묘(草廠坡墓)도용에 나타난 가계양식은 두상의 가운데 고계형 가계를 이루고 양쪽으로 가계가 펼쳐지는 형태를 보이지만 이는 십자형(十字形)가계(沈從文, 1997)로 볼 수 있어 안악3호분의 환계가 확실한 원형을 이루며 두상과 분리되어 고계를 감싸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트로판아스타나(吐魯番阿斯塔那)고분에서 보이는 환계와도 구별되며, 삼도호굴업(三道壕窟業)4현장에 나타난 가계양식은 곡잡수장식(曲簪垂長飾)을 꽂고 있는 형태(周汎, 高春明, 1993)로 이 또한 안악3호분의 가계와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많은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장식면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방법이 중국의

1) 황해도 안악군 오곡리 소재, 1949년 발굴, 인물풍속도무덤(추정연대: 4C중엽).

2) 평안남도 남포시 덕흥동 소재, 1976-77년 발굴, 인물풍속도무덤(추정연대: 5C초).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양식과 차이점을 보인다. <표 1>에서처럼 안악3호분에서는 환계를 돌리고 여발의 끝을 곱게 쓸어 늘어뜨렸으며, 여주인공 이외에 여주인공을 보좌하는 여인들, 주방 여인의 환계에서는 형태가 축소되었을 뿐 이러한 머리카락 장식을 볼 수 없다. 특히《女史箴圖》를 비롯하여 가옥관묘(嘉嶺關墓) 채회화상전(彩繪畫像磚)에서와 같은 중국 가계양식의 머리카락 장식은 한가닥을 늘어뜨려 쉽고 간편하게 장식하는 방법으로, 안악3호분에서 여주인공의 권위와 위상을 표현하는 장식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악3호분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장식방법을 중국 가계양식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허정희, 2002)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셋째, 안악3호분 여주인공이 착용한 장신구는 중국의 보요(步搖)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었으나(김문자, 2001), 중국의 보요와는 형태적인 면에서 명백한 차별성을 갖는다. 즉, 보요는 걸을 때 흔들림을 보이는 장신구의 일종이며, 두상의 앞부분에 꽃아 장식하는 것으로 한대(漢代)고분인 장사마왕퇴1호묘(長沙馬王堆1號墓)와 회화작품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안악3호분에서 보여지는 장신구는 가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잠(簪)의 일종으로 보이며, 잠두(簪頭)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특히 잠두에 표현된 나뭇가지(樹支)모양은 삼국시대 금관 등에서 나타나는 한국적인 수식방법이며, 나뭇가지의 끝이 원형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갖는다(박선희, 2002). 여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의 잠두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시대의 중국 유물자료에서도 살필 수 없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보요와는 다른 장신구로 생각된다.

따라서 안악3호분 여주인공을 비롯한 여주인공을 보좌하는 여인들, 주방의 여인에서 보이는 환계형 가계양식이 중국의 가계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속단할 수 없게 하며, 한국 고유의 가계양식이라는 측면과 국소적인 부분에서 미비하게나마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직녀의 환계형 가계양식<표 1>은 정완진(2003)이 북위시대 가계양식과 유사하다고 밝힌 견해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사마금룡모 목판칠화 등의 유물에서 보이는 양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덕흥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은 유주자사(幽州刺史)를 지내고 영락 18년(408)에 죽은 진(鎭)으로 중국계 망명인임을 감안한다면,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중국 가계양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즉, 한사군의 낙랑군치가 평양지역이 아닌 만주지역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이여성(1955)도 평양지역에는 한(漢)의 관료들이나 유리한 시장을 찾는 호상(豪商)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만든 방시(坊市)개념의 한인방(漢人坊)이 존속하였을 것이라고 밝혔

던 것처럼, 고구려시대 평양지역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영향관계에 치우쳐 안악3호분을 비롯한 평양지역에서 발견된 가계양식이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해석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쓰개형

쓰개형 가계양식은 통구지역의 고분인 각저총³⁾과 삼실총⁴⁾에서 볼 수 있는 양식으로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계양(髻樣)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를 완전히 덮는 복계식(覆髻式)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서 여러 계층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층구분 없이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여성(1998)은 『舊唐書』⁵⁾에서 언급한 건귀(巾幘)이라 보았고, 이에 각저총과 삼실총의 양식은 건귀이며, 여성의 관모라는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최근 『舊唐書』에서 언급된 건귀는 여성의 관모가 아닌 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안되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의 핵심은 건귀가 관모냐, 가계냐는 것이며, 건귀가 가계라면 어떠한 양식을 건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김용문(1992), 강순제(1992), 정완진, 이순원(1994) 등이 건귀는 가계이며, <표 2>의 중국유물에 제시한 광주시(廣州市)에서 출토된 도옹(陶俑)과 같은 중국 가계양식과 유사한 형태가 고구려의 건귀일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강순제는 <표 2>의 중국 가계양식과 같이 건귀는 독립된 형상으로 크게 꾸며진 가계로 보았으며,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 중 안악3호분 여주인공 가계양식이 건귀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완진, 이순원은 중국 기록인 『舊唐書』에서 건귀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구려의 건귀가 중국의 건귀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구려의 건귀는 중국의

〈표 2〉 쓰개형 가계양식

유형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유물자료
쓰개형	 (각저총)	 (삼실총)
		 (東郊東墓陶俑)

3) 중국 길림성 집안현 소재, 일제시대 발굴, 인물풍속도무덤(추정연대: 4C말).

4) 중국 길림성 집안현 소재, 일제시대 발굴, 인물풍속·사신도무덤(추정연대: 5-6C말).

5)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 高麗, 婦人首加巾幘

건귀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가계는 중국 당대(唐代)에 성행하였으므로 인접국인 고구려에서도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 중 건귀으로 부를 만한 것은 강순제의 견해와 같은 안악3호분 여주인공의 양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건귀는 본 연구의 견해와 같이 가계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지만, 고구려의 건귀이 중국 건귀의 화려한 일면에 기대어 해석되거나, 고구려의 건귀이 중국 건귀와 유사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안악3호분 여주인공 가계를 건귀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건귀는 머리위에 덮어 쓰는(覆髮式) 가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說文解字』⁶⁾에서는 귀(幘)을 부인의 머리장식이라고 하였고, 다시 귀(幘)은 본래 궤(篋)자로⁷⁾ 이를 『釋名』⁸⁾에서는 머리를 덮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건귀이 두발을 덮어 쓰는 머리장식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에 주신, 고춘명(1988)은 건귀를 가계(假髻)의 일종이며, 사용할 때는 단지 머리위에 씌우기만 하면 되어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 모자와 닮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성의 가계양식 중에서 복발의 형태를 띠는 것은 이여성이 지목한 각저총과 삼실총에서 보이는 가계양식이 유일한 형태이며, 이에 선행연구에서 중국 가계의 형태에 견주어 안악3호분 여주인공의 가계를 건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계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건귀는 수건이나 머리건을 뜻하는 건(巾)과 머리를 덮어 씌우는 장식을 의미하는 귀(幘)이 하나의 뜻을 이룬 용어로, 이러한 자의(字意) 해석에 근거한다면 직물로 만들어진 가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귀의 소재가 직물이나 아니냐에 따라 건(巾)이나 가계로 구분되는 것은 적합한 분류가 아니라고 본다. 즉, 정완진, 이순원은 고구려와 중국 가계양식이 유사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직물로 만들어진 각저총과 삼실총의 양식은 단순한 건(巾)이며, 가발(假髮)로 만들어진 안악3호분 여주인공 가계양식을 가계인 건귀으로 보았다. 이는 王宇濤(1975), 張末元(1984) 등이 제시한 중국의 건귀이 대부분 가발(假髮)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인접국가인 고구려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가계가 성행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귀는 직물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가계로 건귀를 이루는 소재에 따라 단순한 건(巾)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가계가 소재에 따라 건을 비롯한 관모나 쓰개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의례나 사회적, 미적 기능과 역할에 따라 판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계는 다양한 소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귀는 직물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었으리라 본다. 이러한 예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대(漢

代) 건귀의 소재로 사용된 견사(絹絲)는 짜여져서(編) 완성되었을 때 직물과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대(漢代) 귀부인은 감색 견포로 만든 감증귀(紺縵)이라는 건귀를 착용하였다(杉本正年, 1995)고 하여 건귀는 직물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여성이 제시한 각저총과 삼실총의 가계양식은 복발식의 형태를 갖추고 백색의 직물에 의해 만들어진 건귀이며, 부인의 수식으로 사용된 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형태는 중국 가계에서 볼 수 없는 앞부분이 삼각형을 이루는 변(弁)의 형상으로 고유한 쓰개양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대에 따라 착용양상과 기능이 변화되면서 현재에도 부인들에 의해 착용되어지는 머리수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유희경, 1975) 고유한 가계의 형태를 이룬다고 판단된다.

3. 고계형

고계형 가계양식은 감신총⁹⁾ 벽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고분벽화의 훼손정도가 심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두발을 모두 잡고 체를 더해 높게 빗어 결발한 가계양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계양식은 당시 체(髻)를 이용하여 두발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많은 벽화에서 실물을 접할 수는 없었다. 특히 이러한 고계형 가계양식은 중국 당대(唐代)에서 매우 성행하여 위동묘벽화(韋洞墓壁畫)의 가계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정미경, 1989). 그러나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감신총에 나타난 양식과 중국 유물 자료에 나타난 양식은 형태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감신총에서 보이는 양식은 두발을 높게 하나로 묶어 두상에 단단히 고정하였고, 계(髻)의 중심이 중앙에

〈표 3〉 고계형 가계양식

유형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유물자료	
고계형			
	(감신총)	(韋洞墓壁畫)	(節愨太子墓)

6) 『說文解字』, 第7, 下, 巾部, 婦人首飾.

7) 『星湖僊說』, 卷6, 萬物文, 髮髻. 巾幘婦人之服. 幘本作篋. 幘以巾爲之. 故從巾而作幘.

8) 『釋名』, 卷4, 釋首飾. 篋恢也. 恢廓覆髮上也.

9) 평안남도 남포시 신령리 소재, 일제시대 발굴, 인물풍속도무덤(후정연대: 4C말-5C초).

서 뒤로 기운 형태인데 반해, 중국의 양식은 앞으로 치우쳐 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당대 성행했던 이러한 형태의 가계양식은 절민태자묘(節愍太子墓)벽화 등 여러 유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양식이 중심을 앞으로 두어 닭벼슬과 같은 형태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피면에서도 중국의 가계양식은 매우 확대된 양상으로 나타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과 세부적으로 형태적 상이성을 갖는다. 즉, 고구려의 고계형 가계양식은 중국의 영향관계에서만 치우쳐 살펴볼 것이 아니라, 피발(被髮) 상태에서 손쉽게 결발(結髮)하여 체를 더해 이루는, 가계양식 중 가장 간편한 양식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자연발생적 가계양식일 수 있다는 점,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대 불상의 두발양식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살펴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계형 가계양식이 불교가 가장 번성했던 고려시대까지 매우 성행하다가 조선시대 초기에 쇠퇴하였던 사실이나(임린, 2005), 감신총에서 발견되는 연꽃무늬기둥과 고분천장의 연꽃무늬 벽화내용 등은 감신총이 고구려 소수림왕2년(372)에 전래되었던 불교의 영향기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주영현, 1960)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4. 다계형

다계형 가계양식은 진파리4호분¹⁰⁾과 안악3호분, 약수리 고분¹¹⁾에서 볼 수 있다. 다계형은 본발(本髮)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계를 만들고, 체를 더한 둥글고 작은 계(髻)를 덧붙여 형태를 이루었다.

먼저, 두상에 두 개의 계를 더한 양식은 진파리4호분 벽화에서 살필 수 있다. <표 4>의 다계형 가계양식에 제시한 것은 벽화가 박리되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사도(模寫圖)이다. 체를 더해 두상에 두 개의 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계양식은 선행연구에서 중국 섬서성당상묘(陝西省唐爽墓)벽화에 나타난 양식(정미경, 1989)과 한대(漢代)의 소녀옥용(小女玉俑) 두발양식(김정자, 1982) 등 당대(唐代)를 전후한 중국의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중국양식은 어린아이나 특수계층에서 착용한 것으로 진파리4호분의 가계양식이 성인 부녀자에게 착용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진파리4호분의 가계양식은 『海東釋史』¹²⁾에 기록된 아계(鴉髻)의 형태로 상고시대부터 부인들이 착용했던 양식이며, 어린아이나 특수계층의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진파리4호분에서 보이는 가계양식은 두상에 두 개의 계가 분리되어 착용되었고 그 여발을 땅아 옆으로 늘어뜨린데 반해, 중국양식은 두 개의 계 위치가 양귀(兩耳)로 상당히 치우쳐 있으며, 여발이 없이 모두 묶어 올려졌

<표 4> 다계형 가계양식

유형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유물자료
다계형			
	(진파리4호분)	(안악3호분)	(漢代 歌唱者)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권계순(1966)은 진파리4호분의 가계양식이 중국의 미관동자(未冠童子)의 쌍계와는 상이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 개의 계를 더한 양식은 안악3호분의 여주인공을 보좌하는 여인 및 행렬도의 악인(樂人)과 약수리고분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계형 양식은 <표 4>의 중국 한대(漢代) 가창자(歌唱者)의 두발양식인 삼료계(三了髻)나 감숙주천정가갑묘(甘肅酒泉丁家閘墓)의 양식과 동일하게 간주되기도 하였다(정미경, 1989; 김용문, 2004). 실질적으로 안악3호분에서 보여지는 다계형 양식과 중국 유물자료에서 보여지는 두발양식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한대 가창자의 계는 모두 잠(簪)에 의해 고정되었으며, 각각이 둥글게 합쳐서 결발되었다. 또한 감숙주천정가갑묘에서 보이는 양식은 두발을 세 개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묶고 다시 둥글게 돌려 고정하였으며, 여발이 훑날리는 양식이 특징이다. 하지만 안악3호분의 가계양식은 건류(巾類)에 의해 고정되었으며, 각각 작고 둥근 환을 삽입하는 형태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체를 더해 형태를 이루었던 중국의 양식과는 달리 철사와 같은 특수한 소재를 이용하여 체를 덧붙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의 삼료계보다 발달된 양식으로도 볼 수 있다.

5. 엷은머리형

엷은머리형 가계양식은 안악2호분¹³⁾ 벽화에서 볼 수 있다. 형태는 양쪽 볼로 두발의 일부를 남기고, 체를 더하여 엷은머리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엷은머리 양식은 동일시기 중국의 가계양식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며, <표 5>의 중국 유물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대(唐代) 엷립본(鬪立本)의

10)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소재, 1959년 발굴, 사신도무덤(추정연대: 6C).

11)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소재, 1958년 발굴, 인물풍속·사신도무덤(추정연대: 5C초).

12) 『海東釋史』, 卷第20, 禮志3, 儀物, 章服. 三韓婦人盤髮爲飾女子卷而垂於後然咸作鴉髻餘則垂之.

13) 황해도 안악군 대추리 소재, 1949년 발굴, 인물풍속도무덤(추정연대: 5C말-6C초).

〈표 5〉 엮은머리형 가계양식

유형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유물자료
엮은머리형	 (안악2호분)	 《步輦圖》  《簪花仕女圖》

《보련도(步輦圖)》나 주방(周昉)의 《잠화사녀도(簪花仕女圖)》에서 보이는 양식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안악2호분이 평양지역에 위치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5C말에서 6C초에 축조되었지만, 고구려의 고유한 엮은머리 양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실제로 안악2호분에서 보여지는 엮은머리형 양식은 고려시대 불화나 하회가면의 각시탈, 조선시대 초기의 신말주 계회도나 백자인물명기 등의 가계양식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어 이후 조선시대 최고의 성행을 이루었던 체계(髻髻)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임린, 2005). 이는 고구려가 맺어왔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가계양식이 갖는 독특한 형태와 특성이 간직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하며, 이에 고구려가 고유한 가계양식을 주체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왔을 가능성에도 연구의 관점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고구려 고분벽화 가계양식의 가치와 의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은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복식문화의 한 요소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당시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는 고구려가 처한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간혹 이국적인 양식이나 외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고유한 양식을 유지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양식들이 중국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불구하고, 중국 가계양식과의 뚜렷한 유사점을 살필 수 없었다는 점이나, 고구려 고유의 양식으로 판단되는 특징적인 가계양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에 대한 해석과 견해는 고구려의 역사적 사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이는 안악3호분의 주인공 논의가 그러하고, 낙랑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느냐에 따라 고구려 가계양식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통구

지역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은 고구려 고유의 양식이며, 평양지역 고분벽화의 복식은 외래의 영향을 받은 양식이라는 견해가 논의되고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식 뿐만 아니라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은 인접문화와의 유사성과 그 영향에 대해 치중하고, 고구려의 가계양식이 자체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었음을 소홀히 다루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환계형 가계양식에서 중국 가계양식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간과하고, 유사점만을 찾고자 하였던 연구의 방향이나, 쓰개형 가계양식인 건귀에 대한 논의에서 중국의 가계가 매우 성행하였으니 고구려에도 분명히 이러한 가계가 착용되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낳게 하였다. 물론 외래양식과의 접촉과 이로인한 변화는 필연적이며, 역사적 배경하에서 지속되어 왔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복식문화의 교류는 외래양식의 직간접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문화에 대한 특성이 제시되고, 그 특성들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또는 기존 복식문화 양식과의 조화, 가치관 및 전통과 민족성에 의해 저항을 받게 되며, 절충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접변과정을 겪게 된다(유주이, 2004).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가계양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였고, 중국양식에 대한 영향력과 이로인한 변화만을 고려하여 왔다. 다시말해 고구려 고분벽화에 함축되어 있을 가계양식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양식의 도입과 변형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계양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가계양식은 중국 가계양식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의 가계양식을 발전시키는 단편적인 배경으로 활용되었을 뿐 전면적인 모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환계형 가계양식에서는 형태적인 면에서 중국의 양식과 유사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세부적인 형태나 장식방법이 달리 나타났고, 특징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고계형과 다계형 가계양식에서 보여지는 상이점이나 엮은머리형 가계양식만이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독자성은 국가간 복식문화 교류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외래양식의 수용과 정착과정을 겪으면서도 한국적인 가계양식을 유지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중국 복식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지속시켰던 고구려의 문화적, 민족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

에서 살필 수 있는 가계양식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중국에서 유입되었던 외래양식을 어떠한 복식문화보다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면서 고유의 양식으로 소화시켰다는 점에서 복식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 가계양식의 독자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대 한국 가계양식의 원형과 제도를 밝히 고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고, 중국과의 관련성 논란을 일으켰던 가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을 살펴본 결과, 형태에 따라 환계형, 쓰개형, 고계형, 다계형, 엷은머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양식은 고구려 가계양식이 갖는 고유한 특성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 유물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구려 가계양식이 갖는 특징적인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계형 가계양식은 안악3호분과 덕흥리고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안악3호분 여주인공의 가계는 중국 요양지역 후한 및 위진남북조시대 고분벽화와는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계에 착용된 환계의 형태나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방법, 장신구에서의 차별성은 안악3호분 여주인공 가계만이 갖는 특성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덕흥리고분에서 볼 수 있는 환계형 가계양식은 중국양식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악3호분 가계양식에서 보이는 환계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쓰개형 가계양식은 각저총과 삼실총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은 건립으로 고구려 여성이 착용한 관모로 알려져 왔지만, 복발식 형태를 갖추고 직물에 의해 만들어진 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고계형 가계양식은 중국 가계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가계의 중심이 앞으로 치우치는 형태나 부피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중국의 영향만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양식이라는 점과 불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다계형 가계양식은 두 개나 세 개의 계를 이룬 형태로 진파리4호분과 안악3호분에서 살필 수 있었다. 이들 역시 중국 유물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형태적 상이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엷은머리형 가계양식은 두상에 체를 더해 올리고 여발을 양볼 옆으로 늘어뜨린 형태로 고구려의 고유한 양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은 복식문화 교류에 의해 필연적으로 유입되었던 외래양식을 한국적인 형제로 정착시키면서 고유한 특성을 지속시켰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그동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양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던 종래의 관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한국복식사 전반에서 보여지는 중국복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신중한 고찰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순제(1992).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계순(1966). 우리나라 여자 髻樣考, 효성여대연구논문집, 1, 82.
- 김문자(2001). 삼국시대 머리장신구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 9(5), 721.
- 김용문(1992). 가계와 보요에 관한 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복식, 18, 213-214.
- 김용문(2004).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머리모양과 화장문화. 高句麗研究, 17, 101.
- 김용준(1957). 안악 제3호분(하무덤)의 년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 3, 12.
- 김정자(1982). 우리나라 여성의 발양에 대한 연구. 복식, 6, 36.
- 박선희(2002). 한국고대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224-225.
- 배정룡(1982). 조선조 중·후기 부녀두발의 양식고. 아세아 여성연구, 21, 286-287.
- 杉本正年, 문광희 譯(1995).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서울: 경춘사, 216.
- 沈從文(1997).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3.
- 王宇清(1975). 歷代婦女袍服考實. 北京: 欣欣彩色製版有限公司, 37.
- 유주이(2004). 복식문화의 교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홍준, 이태호(1997). 고구려 고분벽화의 발굴·연구사,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서울: 학고재, 245-246.
- 유희경(198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59-60.
- 이여성(1955). 대동강반 한식 유적·유물과 악랑군치설에 대하여. 역사과학, 5, 99.
- 이여성(1998). 조선복식고. 서울: 범우사, 185-186.
- 임 린(2005). 한국 가계양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張末元, 김영숙 譯(1984). 漢朝服裝圖樣資料. 서울: 동양복식 연구원, 84.
- 전주농(1959).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 문화유산, 5, 32-34.
- 전호태(2003).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아시아 고대 장의미술. 高句麗研究, 16, 68.
- 정미경(1989).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완진(2003).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완진, 이순원(1994). 고구려 관모 연구. 복식, 23, 153-155.
- 周汎, 高春明(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北京: 學林出版社, 49.
- 周汎, 高春明, 栗城延江 譯(1993). (中國五千年)女性裝飾史. 東京: 京都書院, 233.
- 주영현(1960). 고구려 벽화고분의 구조형식과 벽화내용의 변화발전 II. 문화유산, 3, 9-11.
- 주영현(1963).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2, 8.
- 천석근(1986). 안악3호무덤벽화의 복식에 대하여. 조선고고 연구, 3, 27.
- 허정희(2002). 안악3호분의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대 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호근(1976).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 서울: 일지사, 90.

(2005년 11월 29일 접수, 2006년 1월 24일 채택)